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⑧ 끝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①

마군은 수행인의 공덕법 빼앗아

二者辯真正禪發相 行者若於坐中發諸禪時 無有如上所謂諸邪法等 隨一禪發時 即覺與定相應 空明清淨 內心喜悅 擔然快樂 無有覆蓋 善心開發 信敬增長 智慧分明 身心柔軟 微妙虛寂 厭患世間 無為無欲 出入自在 是為正禪發相 譬如與惡人共事 恒相觸惱 若與善人共事 久見其美 分別邪正二種 禪發之相亦復如是 三用止觀長養諸善根者 若於坐中諸善根發時 應用止觀二法修令增進 若宜用止 則以止修之 若宜用觀 則以觀修之 具如前說 略示大意矣

두 번째로 진실하고 올바른 선정삼매에서 일어난 선근의 모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좌선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삼매가 발현할 때는 마음속으로 애증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앞에서 설명했던 갖가지 사뉘는 선정없이 낱낱이 텅 비고 밝고 청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만 리의 푸른 하늘에 끝내 한 물건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현연적인 오묘한 즐거움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며 또한 내 마음을 번뇌가 뒤덮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것은 지혜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사되고 거저되고 오염된 법과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진실하고 올바른 선정에서 발현한 선근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고 단지 선악의 인연을 따르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선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악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악인과 함께 일을 하면 무명 번뇌가 진여를 혼숙하여 즉시 진여가 무명 번뇌를 따라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번뇌와 저속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사람과 공동으로 일을 하면 진여가 무명을 혼숙하게 되고 무명이 진여의 혼숙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은 일을 보게 된다.

이는 옛 성인이 말했던 "선한 사람과

사귀면 마치 향기로운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있으면 향기와 하나로 조화되는 것과 같고, 반대로 악인과 교제하면 마치 어물전에 가서 오래도록 있으면 그 냄새와 하나로 조화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수행인이 선정삼매에서 발현한 모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세 번째로 지관수행을 통해서 선정삼매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수행인이 좌선하는 가운데 안과 밖으로 일체 선근이 개발될 때 반드시 지관수행을 뒤아서 선근이 더욱 자라나게 해야만 한다.

그것은 지 수행을 해야만 할 경우 지를 두고, 관 수행을 해야 마땅하다면 관

수행 깊어지면 마왕이 찾아와 마음 교란시켜 한생각 망상 일으키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

수행을 하여 지와 관을 혼란스럽게 뒤아서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관수행 법문은 앞장의 정수행장에서 자세히 풀이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의미만을 대략 제시할 뿐이다.

覺知魔事 第八

梵音魔羅 秦言殺者 奪行人功德之財 殺行人智慧之命 是故名之為惡魔 事者如佛以功德智慧度脫眾生 入涅槃為事 魔常以破壞眾生善根 令流轉生死為事 若能安心正道 是故道高方知魔盛

본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장까지는 설명은 끝났고 지금 8장에서 수행자의 깨달음과 마군의 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공부가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지면 마왕이 기회를 틈타 수시로 찾아와 수행을 방해하고 선근을 파괴한다. 따라서 마군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달

고 알아 그에게 미혹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군은 범어로는 마라(魔羅)라고 하며, 한문으로 번역하면 살자(殺者)이다. 마군은 수행인의 공덕법을 빼앗고 지혜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를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임시로 연대하여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부처님은 지혜부처의 종자로서 생명을 삼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군의 일과 부처님의 일은 까마득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육도만행으로 중생들을 개과 천선하게 하여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고 괴로움을 떠나 안락함을 얻게 하는

란하게 뒤흔든다.

우리의 현전 일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두루 보편하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망상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마군이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 생각 망상도 일으키지 않고 본래 밝은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면 마군의 궁전이 진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 설산에서 고행하고 성도하려 할 때 마왕의 궁전이 진동하였는데, 그때 마왕은 세존 한 사람이 성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따라 수행하여 마왕의 경계를 벗어나 마군의 백성이 감소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이때에 마왕은 마군의 병사에게 명령하여 세존을 교란시키라고 하였으나 세존을 대광명신통장에 이미 깨달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결같이 마음이 담연하여 일체제법은 법마다 모두 실재의 이치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므로 모든 마군의 병사들이 그 어떤 방법도 써 볼 수가 없었다.

마왕은 다시 자기의 딸을 시켜 유혹하게 하였으나 세존은 신통력으로서 마왕의 딸을 추한 여인으로 변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후 마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와 세존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도 역시 세존에게 항복을 당하였다. 그 때문에 팔상성도 가운데 황마의 설이 있게 된 것이다.

도가 높아야만 마군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도가 한 자 높으면 마군은 열 자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군을 봐도 마군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마군은 스스로 파괴되고, 괴이한 일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괴이함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등하여 가이없는 올바른 생각으로 한계가 있는 마군의 일을 소멸하는 것은 마치 끊는 들속에서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이때에 마왕은 마군의 병사에게 명령하여 세존을 교란시키라고 하였으나 세존을 대광명신통장에 이미 깨달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결같이 마음이 담연하여 일체제법은 법마다 모두 실재의 이치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므로 모든 마군의 병사들이 그 어떤 방법도 써 볼 수가 없었다.

마왕은 다시 자기의 딸을 시켜 유혹하게 하였으나 세존은 신통력으로서 마왕의 딸을 추한 여인으로 변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후 마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와 세존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도 역시 세존에게 항복을 당하였다. 그 때문에 팔상성도 가운데 황마의 설이 있게 된 것이다.

도가 높아야만 마군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도가 한 자 높으면 마군은 열 자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군을 봐도 마군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마군은 스스로 파괴되고, 괴이한 일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괴이함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등하여 가이없는 올바른 생각으로 한계가 있는 마군의 일을 소멸하는 것은 마치 끊는 들속에서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이때에 마왕은 마군의 병사에게 명령하여 세존을 교란시키라고 하였으나 세존을 대광명신통장에 이미 깨달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결같이 마음이 담연하여 일체제법은 법마다 모두 실재의 이치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므로 모든 마군의 병사들이 그 어떤 방법도 써 볼 수가 없었다.

마왕은 다시 자기의 딸을 시켜 유혹하게 하였으나 세존은 신통력으로서 마왕의 딸을 추한 여인으로 변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후 마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와 세존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도 역시 세존에게 항복을 당하였다. 그 때문에 팔상성도 가운데 황마의 설이 있게 된 것이다.

도가 높아야만 마군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도가 한 자 높으면 마군은 열 자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군을 봐도 마군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마군은 스스로 파괴되고, 괴이한 일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괴이함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등하여 가이없는 올바른 생각으로 한계가 있는 마군의 일을 소멸하는 것은 마치 끊는 들속에서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2)십이인연의 소급관찰(眞如還滅觀)

"사람이 늙어가면서 겪는 슬픔과 근심의 고뇌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노사老死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생명(生)이 있기 때문이며, 생명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부처님이 성도하기 7일전에 십이인연의 법칙을 깨우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말로 연기론적 관점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허다하게 많습니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계와 개체물리의 존재인 '유'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유를 '삼계유(有)'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세간(器世間)과 모든 유정들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반드시 기세간으로서의 세계가 있어야만 모든 개체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는 취착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에 집착이라는 욕망심이 없다면 삼계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우리의 어떤 상관성도 없게 됩니다.

집착심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아발로 모든 생명활동의 발원지입니다. 욕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는 외부 현상세계를 받아들여서 탐애와 증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때문에 애(愛)는 수(受)를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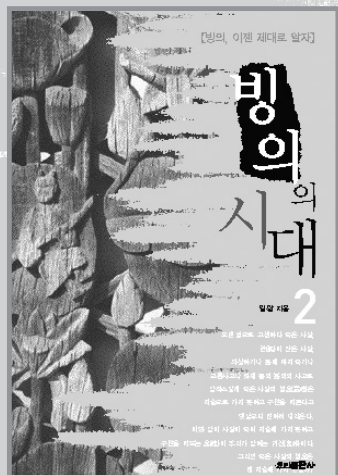
왜 현상사물을 받아들여 감정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외부세계가 나의 인식주관과 부딪치면서 감각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는 촉(觸)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감각이 의지하고 발현할 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촉은 육입(六入)이라는 여섯 도구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감각기관은 다시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인식주관과 객관사물인 오온이 한 덩어리로 화합해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육입은 오온인 명색(名色)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식(識)도 역시 행(行), 즉 식은 분별작용의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행의 일부분에 속하지만 단지 인식인 주관적 요소에 국한되므로 행에서 특별히 따로 떼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식을 의지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해서 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호의존관계성으로서의 인연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위로 추구해보면 식은 의지적인 충동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의지를 '생'이라고 합니다. 행은 다시 무의식 상태의 본능적인 활동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 같은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적 활동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초의 일념무명(一念無明), 즉 무시무명(無始無明)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

빙의, 제대로 알자



지은이/일 광(逸廣)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반단필름